

인디음악의 상업적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ing Commercial about Indie Music

송 예 화, 최 준 란, 김 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Song Ye-Hwa, Choi Jun-Ran, Sang-Heon, Kim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최근 들어 한국 주류의 대중음악 시장은 대형 기획사의 기획형 음악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음악의 장르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중 다양성에 대한 대안으로 인디음악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디음악 역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인디음악의 상업적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인디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디음악의 본연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디음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I. 인디문화의 정의와 현재

인디란 ‘인디펜던스(independence)’의 줄임말로, 인디 문화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류 문화에 반발하는 문화적 태도 혹은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인디음악, 인디영화가 있으며 이는 언더그라운드, 비주류 문화(sub-culture)라고 불린다. 인디문화는 메이저로 일컫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벗어나 제작, 유통 과정을 자체적 방법으로 해결하여 상업적 주류 문화에 비해 비상업적 경향성이 강하며 예술의 진정성, 순수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짙은 문화이다.

최근 한국의 주류 대중음악 시장은 대형 기획사의 기획형 음악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장르 편중 현상, 다양성 부족의 대안으로 인디음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디음악 역시 주류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디음악 본연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디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II. 인디음악의 상업적 변화의 원인 분석

2.1 오디션프로그램이 인디음악에 미치는 영향

인디음악이 본연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으로 인한 인디음악의 상업화, 대중화 추구를 들 수 있다. 최근 시행된 탐밴드(Top Band) 시즌2에서는 인디음악의 메카라 불리는 흥

대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의 대거 참여가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타방송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동경하던 뮤지션이 출연하게 된 점과, 몇몇 인디 뮤지션의 공중과 방송 출연 후 나아진 경제 상황으로 인한 의식 변화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디 뮤지션의 공중과 방송 출연으로 수면 아래 존재했던 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각종 페스티벌이나 흥대에서 인디음악이 더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밴드, 슈퍼스타K와 같은 공중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디밴드의 활약은 상업성보다 예술성을 추구한다는 인디 뮤지션의 기본 근간과는 조금 동떨어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인디음악이라기보다 이제는 상업화, 대중화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또한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본래의 인디적인 독창성과 특수성을 담은 음악보다 대중적, 스타적 성향을 지닌 음악과 뮤지션이 주류를 이뤘다는 아쉬움이 있다.

2.2 정부정책이 인디음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인디음악의 변화에는 인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시행 방향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권 교체 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인디밴드, 인디기획사들이 재정적 도움을 받아 약진하는 것에는 달리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가 얻으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게 만든다. 정부 지원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한 가지 원칙은 결과물 위주

의 평가라는 것이다. 인디밴드 지원 사업을 통해 몇 명의 청년실업이 해소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팀이 되었는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는 본연의 인디밴드 활성화 정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 순히 이런 잣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실 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곳에 너무 많은 금액이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인디기획사들 간에 지원사업 유치경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유치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상 또한 유발했다. 또한 인디밴드 육성을 위한 기초사업 역시 결과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원 사업 후 밴드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인디밴드 지원 사업이 오히려 인디음악 발전에 저해가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3 경제 불안정이 인디음악에 미치는 영향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인디 뮤지션들의 의식 변화 또한 인디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디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각기 다른 형태와 모습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디음악에는 주류라는 표현이 생겨나고 있다. 언더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주류에 속해야만 일정한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는 뮤지션들의 의식 변화로 인디음악의 기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음악을 해야만 사람들이 듣는다는 생각에서 인디밴드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바꾸고 있으며, 몇몇 인디밴드들은 음악적 고집이 없는 것이 인디음악이라는 편협하면서도 인디정신에 역설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인디음악의 저급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많은 클럽이 경영 불안정으로 위태로워지면서 인디밴드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로 행사장이나 페스티벌 현장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 자신들만의 순수한 음악보다는 대중 혹은 관객을 위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많은 인디 뮤지션들은 다수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써의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 인디음악의 향후 방향

인디음악의 발전을 위해 인디밴드가 가장 처음 노력해야 할 것은 인디 본연의 정신을 찾는 것이다.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무대에 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인디 본연의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음악을 고수하는 인디밴드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들은 상업적, 기획적인 목적에 의해 팀을 만들기보다 자신들의 음악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연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음악은 소수의 관객들에 의해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급속도로 발전된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도움으로 빠른 속

도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여러 메이저 기획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인디적 성향을 잊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디음악의 정부 지원사업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창작을 위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인디문화를 대변하고 홍보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블로거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간접적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인디밴드들의 음악 활동을 위한 작업실, 연습실 같은 시설 지원을 확대해 인디밴드들이 자유로운 음악 색깔을 잃지 않게 돕는 것도 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디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인디레이블의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로서의 예산 확대와 인디레이블에서도 음반의 제작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인디음악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음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표절과 같은 법적 문제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법협회에서도 인디음악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하고 다양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인디음악의 저작권법에 대해 추가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디음악은 대중음악계의 뿌리로도 볼 수 있다. 독립적 성향이 짙은 인디음악마저도 획일화된 장르의 음악들만 양산해 낸다면, 앞으로 한류 음악은 물론 국내 대중음악 시장 역시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인디밴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개발과 인디음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강현, "인디 음악의 현주소" 창작과 비평, 통권 제113호 pp.354-357, 2001.
- [2] 양인화·김상헌, "소셜 펀드레이징을 통한 인디레이블의 제작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 춘계종합학술대회, 제10권, 제1호, pp.229-230, 2012.
- [3] 이창민, "인디문화의 현주소를 말하다." 네이버검색, <http://lcmpark.com/130130608964>, 2012.
- [4] 임진모, "인디 음악에 대한 정의", 한국방송작가협회, Vol.67, pp.54-55, 2011.